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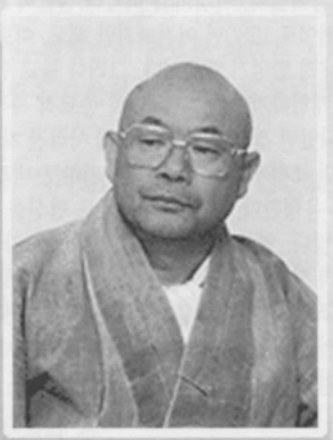
경기불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김지은, 강경림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서른한번째)

성해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글로벌시대의 한국불교
■ 일시 : 불기2549(2005)년 10월 22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성해스님 약력

▶생년월일 : 1941년 경남합천출생
▶학력사항 : 자유중국 현장불학원에서 삼장법사(불학박사)취득
▶경력사항 : - 조계종 중앙포교사
- 뉴욕 불국사 초대 주지
- 뉴욕 불교국제봉축위원회 봉축위원장
- 제주도 서귀포 탐라선원 원장(한국주석)
- 팔달사 주지

10월 사찰환경 답사

가야세계문화축전2005
김해, 은하사, 범어사, 오어사, 보경사

■ 일 시 : 2005년 10월 15일(토)~ 10월 16일(일) 1박2일
■ 출발지 : 오전8시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7만원(중식비/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10월호

불기2549(서기2005년) 10월 (통권 제25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권두언

한국의 불사佛寺 유형

보현진열/감로암사 분향주

절이란 거룩한 영역의 땅이란 뜻으로, 불교의 법보-불보-승보를 모시고 유지 전승해 가는 도량이다. 그래서 절의 그런 최고 책임자를 주지住持라 부른다. 도량에서 삼보를 모시고 받드는 이라는 의미다. 불교사 최초의 절은 빔비사라왕이 석가모니불에게 기증한 죽림정사와 수닷타 장자의 기원정사를 손꼽는다. 재력있는 분들의 보시와 기증으로 절들은 이루어졌고, 이후 탑과 더불어 불교의 현실적인 교세의 축을 이룬다.

절의 형성에서, 좋은 땅을 골라 새롭게 설계해서 만든 경우도 있으나, 사가私家를 개조해서 절로 한 경우도 있고, 문중이나 나라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다. 가장 많은 시주한 자들을 보통 설판 재자라 부르며, 이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시줏돈을 모아 절을 건립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다. 건립되면, 마땅히 시주자 명단이 적혀 일반에게 공개되거나 건립 공적비로 기려 전승되곤 한다.

불교 유입 초기에는 왕실이나 귀족들의 헌납이나 기증으로 건립돼 주로 왕실 원찰이나 명문 귀족의 원찰들이 많았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들은 모두 여기서 유래한다. 시대가 지나 차츰 토착화되면서 재력있는 불자들의 시주에 의해 절들이 증축이나 신축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상궁이나 절손된 미망인 또는 재력 있으나 소외된 일부 인사들이 사재私財를 털어 절로 만들어 생전에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사후에는 제사를 받으며, 내세의 복락을 위한 관례와 습속이 있어 왔다. 그런 순수한 믿음 때문에, 전통대로 삼보가 모셔진 절이 많았기에, 나중에 전통 사찰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절들이 형성된 배경이다.

한반도에서 적어도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절 형성의 전통과 내력이 그런대로 순수하게 전승돼 있었다. 민족 깊은 정서 속에 선근 복덕의식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인구의 감소와 함께, 이후에는 부동산에 경제적인 치부가 결정되면서 절 건립의 동기에도 자본주의 논리가 개입하기에 이르며, 점차 종교적 목적 보다는 생업 목적의 절이 돼 갔다. 그래서 과거의 순수한 불교적 믿음에서 사재私財가 불사佛寺로 전향되었던 경향과 전통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체질화되면서 절도 자본의 논리를 따라 변하고 있는 증거다.

억불이 심했던 조선 시대에는 불교가 지하로 내려 앉으면서 무당들이 불교의 사상事像들을 받아들여 자기네를 자칭 보살이라 말하면서 이른바 '보살절'이 유행한다. 세인들은 지금도 만신을 모시는 무당을 보살이라 부르며, 그곳에는 응당 절 卍字 마크가 있으며, 불상이나 탱화도 모시는 경우가 많다. 영세한 경우도 있지만, 규모가 번뜻한 절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 한편 모두 절의 형성과 발전에 이바지 했다.

전에는 무당의 사후에 종단에 등록 기부되는 경향이 많았지만, 부동산이 치부와 재테크 수단으로 자각되면서, 절도 사고파는 사찰부동산으로 등장했다. 그러자 자손에게 상속되거나 매매하면서, 절을 운영하는 이들은 확실히 생업 목적으로 정서가 바뀌게 됐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 불자가 절을 오래 다니다가 어느 날 절을 만들어 스님을 모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보살절'이라 부르며, 보살절이라 하더라도 무당이 전권을 쥐고 운영하면 이를 보통 '무당절'이라 인식하니, 넓게는 같으나 좁게는 좀 다르다고 하겠다. 무당절은 또 만신절이라 하며, 삼보는 없다. 보살절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 관계가 성립돼 스님이 월보시라는 명목으로 용돈인지 봉급인지를 받으며 불공과 제사 등 불교 의식을 행하며, 불보와 승보는 있을지라도 법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보가 없는 절이란 정통적인 절이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활공간에서 존재하며 절 흉내를 내면서 아류 절로 자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들마저 없으면 불교 인구는 절멸에 가까울 것일 지도 모른다. 제대로 불교 교육을 받은 불자란 거의 없고, '내 할머니가 절에 다니니 나는 불자다' 식의 불자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곡해된 불교를 가지고 한 평생 사는 이들도 많다. 1년에 초파일날 절에 한번 가서 등 켜고 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불자다 하는 사회적인 통념과 인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엄밀하게 따져 알맹이다운 불교 인구는 격감해서 미미하고, 쭉쟁이다운 불자는 많은 셈이다.

삼보는 저 멀리 가 있고, 눈 앞에는 오로지 자본의 증식에 몰두할 뿐이니, 이것이 불교의 새 장인지 아니면 퇴행인지 아리송하다. 새 장이라면 대승불교의 끝일 것이요, 퇴행이라면 정통 불교의 세속화일 것이다. 경기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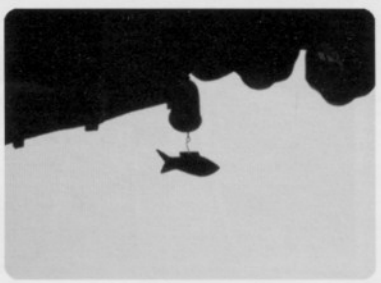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4)

진실이 아닌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 진실에 이를 수 없다.

– 법구경 11 –

They take untruth for truth;
they take truth for untruth;
such persons can never arrive at the truth,
for they hold wrong views.

– DHAMMAPADA 11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중국 동북지방 문화답사(II)

2) 요양, 백탑

경기불교문화원장/ 우양 금당 진철희

동북3성을 여행하다보면 때때로 여기가 중국인지 아니면 한국의 지방 소도시인지를 착각할 때가 있다. 거리의 건물 구조도 한국의 신흥도시답게 3~5층의 콘크리트구조물의 한글간판까지 달려있는데 주변에서 때때로 한국말이 들려오면 외국에 온 느낌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안산에서 요양으로 가는 버스차창에 기대어 주변풍광을 바라보면서 동북3성이 한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무대가 된 장소-**고구려(수.당나라) 고려(원나라) 조선(청.명나라) 일제시대(강제이주.독립운동)**-가 여기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 왠지 가슴이 착잡하게 만든다.

한국사를 배운 사람은 중국과 고구려의 항쟁 중에 일어났던 살수대첩(을지문덕,612년) 안시성전투(연개소문,645년)는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고구려가 왜적과 전투할 때는 거의 성(城)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제일먼저 요동성의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요양이다. 이 요양을 기본방어성으로 중간방어성(태자하 상류)과 수도방어성(집안)으로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구축하여 나라를 지켰기에 수양제의 113만 대군과 당태종 이세민의 고구려정벌의 진로를 차단한 것이 이 지역인데 가이드 이야기로는 요동성은 고성(古城)이라는 흔적만 있으며 요양시는 청태종 누르하치가 심양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동북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된 도시라고 짧게 설명한다.

요양시의 명물은 광우사에 있는 중국의 6대고탑(六大高塔)- **송악사탑(하남성 동봉) 석가탑(산서성 용현) 천신탑(운남성 대리) 비흥탑(산서성 홍등) 대안탑(섬서성 서안)**에 이어 6번째 탑이다.

입장권을 들고 광우사 대웅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예불을 마친 다음 답사반들은 초여름에 우거진 나뭇잎사이로 하늘을 떠받듯 백탑이 있는 장소로 가까이 가보니 그 위용이 아름답다. 높이가 71미터 한변이 7미터 팔각(八角)13층으로 된 밀첨식(密?式)으로 금나라의 전탑이다. 탑신과 처마의 벽돌기와에 백회를 발라 하얗기 때문에 백탑이라고 한다.

백탑은 다른 탑들과는 달리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송나라계통의 층탑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더욱이 외벽에는 많은 부처님의 부조를 만들어 독자적인 수법으로 탑 전체에 구도와 모양이 아름다워 금나라 전탑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평을 듣는다고 하며 동북3성중에서는 가장 높은 탑이다.

"폭우가 성머리를 씻고 나니/ 미처 비구름이 가시지 않았는데
백탑꼭대기를 바라보니/ 푸른 하늘을 꿰 질렀네"

라는 백탑에 관한 시구가 떠올라 읊어본다. 백탑을 중심으로 만든 사찰은 금대에는 중운사(重雲寺)라 했고 명대에 이르러서는 광우사(廣祐寺)라고 하여 문화혁명 때 소실되어 얼마전 복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백탑 앞에는 관음전이 있어 들어가 보니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 인자하게 이방인을 맞아주시며 왼쪽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커다란 확대경안에 모셔놓고 참배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으로 보아 중국의 불교관광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한다. 경기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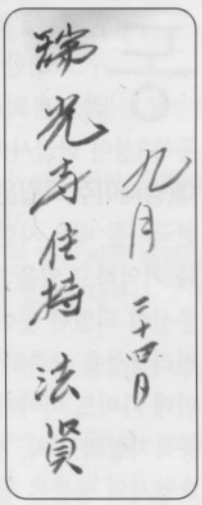
가마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감로보석
대표 : 이 재 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4-1(선일프라자 107호)
TEL : 031)255-9484 H.P : 017-312-9484

좋은 인연과 둥지마을

법현스님

문명의 발달이 남겨준 인간성 상실의 결과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악과 탐욕의 물결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결에 현대인은 표류하고 있으며 이런 시대를 일러 말법시대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둥지에 모인 어린 생명들도 늘어만 가는 인류의 공동 죄업의 한쪽에서 외롭게 떠돌던 중생들입니다. 이 생명들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혜은을 입어 무량광명의 주인이 될 날을 기다리며 법당에 지장보살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족들은 지장보살님의 대비원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력으로 우리들의 오늘은 행복하고 우리들의 내일은 희망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모르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좋은 사람이나 일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고 나쁜 사람이나 일을 만나면 나쁜 인연이라고 합니다.

좋은 인연〈善緣〉은 많을수록 좋고 나쁜 인연〈惡緣〉은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한 순간도 쉬지 말고 좋은 인연의 주인공이 되도록 모두 힘쓰는 세상을 만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고 정토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나서 출가사문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거룩한 인연을 얻고 다시 서해의 한 야트막하나 산자락에서 오갈 데 없는 어린 생명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인연을 얻었으니 나도 어지간히 큰 복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내가 누릴 복의 전부가 아닐 것이고 이 복이 반드시 나만의 복일 수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아직도 만나서 함께 해야 할 인연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만의 복일 수 없다는 것은 출가수행자로서 아무런 재능도 없으면서 이 막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많은 인연불자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십시일반의 정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인연불자들과의 만남은 분명 좋은 인연일 것입니다.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 20여 년 원력의 결실인 이 집은 우리 가족에게 더없이 포근한 둥지입니다. 우리는 이 둥지로 날아오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아픈 인연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슬프다고 생각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밝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부처님께 예불하며 오늘보다 더 좋은 인연의 내일을 빌고 서로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희망의 인연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둥지는 꿈의 둥지이고 희망의 둥지이며 마침내 성불의 대도량이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 둥지에서 이 생애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연을 만났으며 앞으로도 무수히 만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둥지 안에는 그런 좋은 인연의 씨앗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 인연의 주인공은 이 중생계의 모든 생명들이고 무생물들입니다. 이 둥지에서 맺어지는 인연은 그야말로 과거의 천생과 미래의 천생만생을 함께 할 천생인연이고 만생인연임을 의심하지 않기에 오늘도 이름 새벽 우리 둥지 가족들은 희망의 햇살을 맞이합니다.

(이 글은 스님의 자서전에서 편집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경기불교

변호사 조 복 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흥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은해사,백흥암,거조암 순례기

- 꼭! 가보고 싶었던 그 곳

김영순/ 포교사

오전 6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를 막 빠져 나오는데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김명자 보살님이 답사를 가기 위해 나오시는 것이었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오늘 답사는 집에서부터 길동무가 생겼고, 하루 종일 즐거움만이 함께 할 것이라는 예감에 걸어 나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가을 들녘에 비추며 떠오르는 태양도 우리를 마냥 설레게 했다.

문화원에 도착해서 인원점검을 하고 신청하고 가지 못하시는 분을 제외한 30여명이 은해사, 백흥암, 거조암으로 출발했다.

문화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달마야 서울 가자" 비디오 한 편을 보고 나니 은해사에 도착했다. 은해사에서 먼저 점심 공양을 하고 포교 국장스님으로부터 은해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신라 41대 헌덕왕은 조카인 애장왕을 폐위 시키고 즉위 하였으며 헌덕왕의 참회와 함께 당시에 숨진 원혼을 달래고 나아가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해 809년에 창건 되었다. 은해사의 옛 이름은 해안사(海眼寺)이며 운부암에서 가까운 해안평이 그 옛터이다. 해안사는 조선 인종 원년(1545)에 화재로 모두 타 버렸고, 인종의 태실(胎室)을 수호하는 사찰이므로 이듬해 나랑에서 하사한 보조금으로 천교 화상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절을 중창하고 은해사(銀海寺)라 이름을 고쳤다. 팔공산 은해사는 10교구 본사이며 대웅전에는 아미타 삼존을 모신 아미타 도량이다.

불, 보살님계신 이 곳 은해사가 은빛 바다가 물결치듯 찬란하고, 웅장한 그대로의 극락정토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며 운해(雲海)라고도 한다. 신라 진표 율사는 관견(觀見)이라는 시에서 "한 길 은색 세계가 마치 바다처럼 겹겹이 펼쳐져 있다" (一道銀色世界如海重重)이라고 표현 했다.

오늘날 은해사는 종단 최고 교학연구 교육기관인 승가 대학원이 있으며, 북한 불교계와의 교류 및 평화 통일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직 성보 박물관이 개관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우리 답사반원들을 위해서 박물관을 관람하게 허락하여 주셨다. 조선 시대 명필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의 '대웅전' 친필 현판과 은해사 괘불(보물 제480호)등을 관람하고 백흥암으로 향했다. 몇 해 전에 은해사, 백흥암, 거조암등을 답사 했었는데 몸이 아파서 백흥암을 가지 못했었다. 그 때의 아쉬움을 그리고 '꼭! 가보리라' 는 발원을 담아 걸어서 백흥암에 도착하니 안거 중에는 개방하지 않는 극락전(보물 790호)을 열어 주셨다.

부처님께 삼배하고 돌아보니 이곳이 극락이었다.

수미단(보물 480호)에는 층마다 음각과 양각 또는 투각으로 새겨진 봉황, 공작, 꿩, 용, 잉어, 개구리, 동자, 코끼리, 사자, 사슴, 모란 등으로 장엄해 놓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 가피로 여기 극락전에 앉아있구나' 하고 감사함과 머리가 절로 숙여 졌다. 단청이 탈색되어 은은한 천장에는 보기 드문 형태의 닫집과 들보 밑으로 걸린 '용가' 에는 9개의 종 중에서 한개가 달려 있었다.

참배를 하고 극락전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바삐 내려와 거조암으로 향했다. 거조암(국보 14호)은 신라 효성왕 2년(738)에 원참 도사가 창건 했다고 전하며 고려 시대 목조 건축물로써 몇 안되는 건축물이라는데서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고려 중기 송광사에 수선사를 세워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이룩하게 이전에 각 종파의 고승들이 지눌스님을 중심으로 정혜결사를 발의 하셨던 곳이다.

또한 거조암은 526분의 나한상을 모시고 있는데 3일만 지성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 진다는 유명한 나한 기도 도량이기도 하다.

거조암 참배를 끝으로 우리 답사반원들은 수원을 향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평소에 인사만 하고 지냈던 무량심 보살님과 이선우 보살님과 그 동안 보여진 모습을 이야기 하다 보니 수원에 도착 했다. 문화원 원장님에 끝맺음 말씀이 있으셨고 10월에는 1박 2일로 김해(가야세계문화축전2005),범어사를 둘러보고 동림사에서 1박을 하고 포항에 있는 오어사와 보경사로 답사를 간답니다.

마니 마니 동참 하세요.

모두 모두 성불 하십시오.

정각행 합장 경기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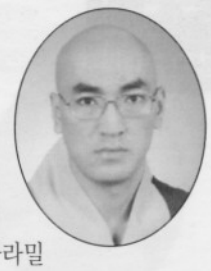
생활역학 기초, 고급반 수강생모집

- 생활 역학 기초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생활 역학 고급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기 간 : 각 3개월 과정
- 수강료 : 기초반(10만원), 고급반(15만원)

불교의식 강좌안내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10월 10일 개강)
- 내용 : 불교의식(목탁집전)
- 기간 : 3개월 과정
- 수강료 : 60,000원 • 강사 : 권 혁 찬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 독송공덕 -



虎岩 迦葉스님

금강경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독송되고 연구되는 것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이다. 이 금강경은 이름이 말해주듯 금강(金剛)이란 보석 중에 가장 강하고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라는 뜻이며, 반야는 밝고 맑은 근본 지혜를 뜻하며, 바라밀이란 언덕의 뜻이며, 경이란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므로 '가장 강하고 밝은 지혜의 언덕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독송하면 신심이 다이아몬드처럼 돈독해지고 마음에 맑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음에 있는 모든 집착의 상(相)이 망상을 일으켜 업(業)을 짓고, 그 업으로 인해서 과보를 받아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모든 상(相)을 놓아버리면 곧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經典)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당부하신 교훈이다. 금강경은 중생이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상(相)이든 모양을 지어 집착하면 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모든 상을 버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다.

금강경에서 목적하는 것은 보살(菩薩), 즉 중생으로써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위없고 비유할 수 없는 바른 깨달음)를 성취하겠다는 서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서원의 자리를 깨달음을 성취할 때까지 지키며,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계가 나타나 그 유혹에 끌려가려는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 순조로운 수행으로 성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상(相)이 끊어지면 마음의 본래 자성인 맑고 밝고 깨끗한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므로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다(應無所住而生其心)"는 경계를 성취할 수 있다.

마음이 어떤 상(相)에 의해서 머무르는 바가 없는 이 자리는 차별이 없는 평등의 자리이며, 막힘이 없는 자유의 자리이며, 구속이 없는 해탈의 자리이며, 번뇌망상이 없는 열반의 경계이다. 이것이 곧 수행자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첫 마음이다.

종자와 열매는 그 모양이 같은 것처럼 시작과 결과는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초심(初心)을 성숙시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초발심(初發心)이 곧 정각을 이룬다(成正覺)"라는 의미다. 세상을 살다보면 무엇인가 하려고 원은 세웠지만 초지일관 그 뜻을 관철시켜 성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끌려가는 마음, 게으름에 포기하려는 마음,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 등 이러한 번거로운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면 초발심의 목적은 희미해지고 모든 의지를 잃게되며 중생의 괴로운 삶을 떠날 수 없다.

금강경의 수행법은 모든 상(相)을 떠나는 것이다. 모든 상(相)을 떠나면 초발심에서 세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은 자연히 없어지고 부처님과 같은 열반의 즐거움만 있게 된다. 금강경은 마음의 헛된 망상을 비우는 수행이 담겨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독송하면 전생의 죄업이 소멸하고 마음이 깨달음의 지혜로 밝아지게 되므로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

마음이 편안하여 어떤 상(相)에도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인욕행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계(戒)를 받아 지키고 복을 지어 신심을 일으키므로 모든 부처님이 즐거워하신다.

금강경은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금강경은 마치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으므로 금강경을 독송할 때는 부처님이 기뻐한다는 의미다. 금강경을 독송하면 할수록 금강경에 대한 의미를 차츰 마음에 익히게되고, 자연히 금강경의 수행에 익숙해지게 되므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금강경의 네 구절만이라도 알려주고 독송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공덕이 마치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보배로 보시하는 것보다 수승하다는 것이다. 경기불교

9월달 후원회비 내주신분들(9월 1일 ~ 10월 1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김명옥, 김영희, 김혜자, 박청용, 송호윤, 양황경, 이기순, 이병일, 이윤철, 장용집, 조병희, 차용희,
진철희, 김미월, 김용필, 두금덕, 배민한, 심화식, 어윤식, 이기원, 이상남, 이임성, 정경화, 조성남, 최명길,
강재수, 김미정, 김은주, 민춘홍, 배정희, 안민식, 엄명희, 이기준, 이상범, 이태갑, 정무근, 조창윤, 최숙련,
공석남, 김수은, 김재숙, 박경아, 서상렬, 안영찬, 염규용, 이난호, 이선우, 이태순, 정현숙, 주인수, 최정자,
권중서, 김순옥, 김정수, 박선현, 서의호, 양정례, 오선옥, 이남덕, 이수교, 이현주, 조권형, 진기홍, 한혜승,
김기현, 김 순 자 김중옥, 박영희, 손용식, 양재흥, 윤광숙, 이대곤, 이영옥, 장영남, 조남종, 진상범, 함대식,
김말수, 김영동 , 김준호, 박정자, 송경주, 양준영, 윤영무, 이민수, 이옥자, 장옥훈, 조명숙, 진주범, 홍인숙

기초교리 수강생모집

• 인원 : 30명 • 수강료 : 60,000원
• 강사 : 전문법사 • 내용 : 불교기초교리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듣는다(서른번째)

불기2549(2005)년 9월 24일(토)오후3시에 본원 큰법당에서
법현스님의 현대불교와 자비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린법회가 열렸습니다.

● 제 1기 생활역학 중급반 수료식

9월 8일 목요일 제 1기 생활역학 중급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불자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9월 사찰답사

9월 사찰답사는 경북영천 팔공산부근의 은해사, 백흥암, 거조암을 다녀왔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은해사 대웅전 친필현판에서는 추사체의 기품을 맛볼 수 있었으며, 은해사 내부의 다양한 괘불 등은 화려하면서도 혼연일체된 모습이었습니다. 백흥암의 수미단은 그 정성이 눈에 보이는 듯, 섬세함과 예술성을 느낄 수 있었으며 526분의 나한상을 모신 거조암에서는 다양한 나한상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어서 색다른 경험을 하였습니다.

● 10월 가을학기 개강

- 생활역학 기초반이 10월 12일 월요일에 개강하였습니다. 역학과 운세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의식강좌가 10월 10일 월요일에 개강하였습니다.
- 기초교리강좌가 10월 12일 개강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행사안내

● 가을맞이 열린음악회

- 10월 22일 오후 5시에 가을맞이 열린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출연진으로는 소프라노 김혜은, 피아노 이정은 찬조출연자로는 만의사합창단과 불자가수 문명하씨가 있습니다.

● 하반기 해외성지 순례

- 세계 7대불가사의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사원은 샤일랜드라 왕조에 의거 9세기경에 건설되었으며, 회교국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불교사원이며 역사적인 가치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왓트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양 자바섬에 계시는 부처님에게 참배하시고 세세생생가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행사명 : 인도네시아 불교 성지순례
- 일 시 : 2005년 11월 23일 ~ 11월 29일(5박 7일)
- 일 정 : 인천공항-발리-족자카르타(보로부도르사원)-자카르타-인천공항
- 동참금 : 990,000원정도(1인)
- 마 감 : 2005. 10. 15(20명이내)

교계소식

● 법장스님 회향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께서 2005년 9월 11일 세수 64세, 법랍 45세를 일기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10월 31일에 실시합니다.

● 조계종 첫 여성신도회장 탄생

조계종 신도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 신도회장이 탄생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3대회장에 김의정(金宜正,64)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 동국대 일산병원 정식 개원

2000만 불자들의 숙원을 담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이 정식 개원식을 봉행하고 수도권에 불교계의 메머드급 종합병원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렸다.

2005년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 업 일	비고
불교강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10월 10일 개강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0월 12일 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경전강좌	가섭스님	30명	16주 120,000원	금강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화강좌	요 가	문명순	20명	3개월 90,000원 (12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임산부 요가(주2회)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30분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반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 다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0월 11일 개강
	다도중급반	윤영예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 중급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10월 10일 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초급)	10월 12일 개강
	명리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50,000원	역학, 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고급)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 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 영어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 수시
	경 락	고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성해스님	100명	무료	글로벌시대의 한국불교	넷째주 토요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70,000원	범어사, 김해, 동림사, 은하사, 오어사, 보경사	셋째주 토요일 오전8시 출발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 FAX. 031-251-1779